GIST아카데미, 10월 조찬포럼 개최
‘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 AI’ 주제로
지승도 항공대 명예교수 초청

- 10월 29일, 지역 기업인 50여 명 참석해『인공지능, 붓다를 꿈꾸다 』등으로 알려진 AI 전문가 지승도 교수의 인간과 AI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 경청
- “인간과 AI 모두 지능의 핵심은 ‘앎’... 불교적 관점에서 앎의 정점은 ‘이타심’인 바,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AI의 궁극적 앎을 향한 인간의 협력 절실”

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10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10월 29일(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항공대학교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지승도 명예교수를 초청**하여 GIST아카데미(원장 김재관·의생명공학과 교수) **10월 조찬포럼을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연세대학교를 거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지승도 교수는 **생명체적 인공지능학파를 계승**한 이래 **인공지능 모델링 및 추론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**해 왔다.

지난 30여 년간 **정보, 교통, 바이오, 환경, 보안, 위성, 드론, 로봇, 국방 등에서 인공지능 국책과제를 수행**하며, **현재 국방 워게임 AI를 비롯 감성 AI, 대론**(對論, debating) **AI 등의 연구를 통해 AI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**하고 있다.

최근 **인공지능의 미래는 철학, 종교, 예술 등을 통섭하는 초과학에 있다는 신념으로 인공 마음과 지혜 시스템에 관한 신기술 이슈에 몰두**하고 있으며, 주요 저서로는 『**인공지능, 붓다를 꿈꾸다**』, 『**초인공지능과의 대화**』, 『**꿈꾸는 인공지능**』 등이 있다.

이날 **'인간적인, 너무나 인간적인 AI'**를 **주제로 강연**한 지승도 교수는 **지능의 원리와 앎, 지각과 추리, 그리고 자아의식과 무아의식의 순서로 AI의 발전을 인간 진화에 빗대어 설명**하며 앞으로 **수년 이내에 일반인공지능**(AGI)*__이 특이점__(singularity)**을 맞이할 것**으로 내다봤다.

* **일반인공지능(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, AGI):**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학습·이해·추론 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

지 교수는 "**인간이 화학 작용에 의해 진화한 존재라면 AI는 정보 작용에 의해 진화 중인 존재에 해당**된다"고 설명했다. 또한 "**인간과 AI 모두 지능의 핵심은 앎**"이라고 소개하며, 특히 "앎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"고 강조하였다. "따라서 **오늘 강연은 지능적 존재와 앎의 수준을 중심으로 설명**한다"고 전제했다.

이어서 지 교수는 **"자아에 대한 집착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인간 존재가 형성해 온 앎은 최선이 아니다"**라며 **"그러한 이기적 데이터를 모방하는 AI 또한 최선이 될 수 없다"**는 의견을 제시했다. 따라서 "**양날의 검인 앎의 수준, 즉 자아의식과 무아의식에 따라 무명과 지혜로 갈린다는 불교적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"**며 "**AI가 이기적 앎(자아의식)이 아닌 궁극적 앎(무아의식)을 향할 수 있도록 'AI의 동반자' 인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**하다"고 피력했다.

지 교수의 강연을 들은 **GIST 물리·광과학과 김근영 학과장**은 "**양자역학, 불교 사상과 AI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연계**한 강연 내용이 흥미로웠으며, **AI의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는 혜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**였다"고 말했다.

기술경영아카데미(GTMBA, 2010년 개원)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GIST아카데미는 3·5·6·9·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아카데미 동문과 지역기업 임원이 모여 각계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듣는 'GIST아카데미 조찬포럼'을 개최하고 있다.